

4단계에 주저앉은 소상공인... 10곳 중 6곳 “휴·폐업 고민”

(거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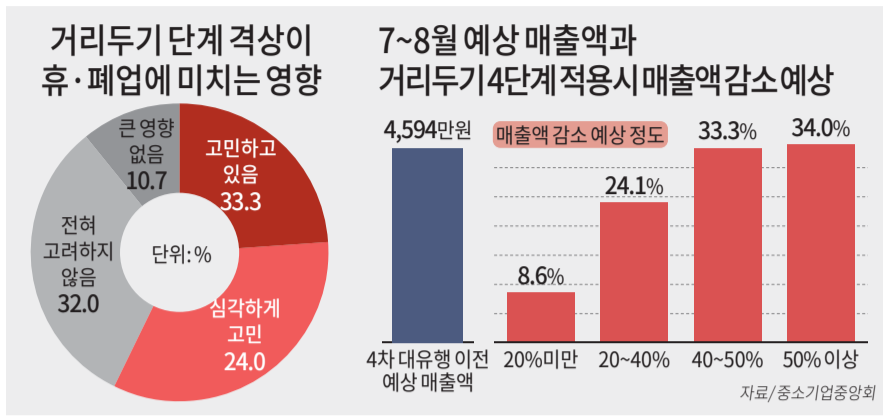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실태 설문 7~8월 매출, 예상치 절반수준 “추경안 자금지원 신속 집행해야”

“4단계가 되면서 저녁 예약이 99% 취소됐다. 이참에 아예 몇 달간 쉬려고 민중이다. 주변에도 ‘휴무’라고 써붙인 음식점이 많이 늘어났다.”

서울 중각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가 한숨을 내쉬며 밝은 말이다.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종로 상권의 일평균 유동인구는 42만6728명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지난 15일 오후 종로 젊음의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4차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음식점 등 소상공인 타격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아예 쉬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소상공인 특성상 이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들 10곳 중 7곳은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음식점, 숙박업 종사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

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18일 내놓은 결과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격상되면서 수도권 소상공인의 58.6%, 지방 소상공인이 55.8%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휴·폐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큰 영향 없다’는 답변은 수도권, 지방 모두 40% 정도에 그쳤다.

수도권 기준 응답 소상공인들은 4차

대유행 이전에 7~8월 매출액이 평균 4594만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등 기대가 다소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면서 기대는 꺾여 7~8월 예상 매출액은 당초 예상보다 ‘40~50% 감소’가 33.3%, ‘50% 이상 감소’는 34%로 집계됐다. ‘20~40% 감소’도 24.1%에 달했다.

신촌대학가에서 1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모 사장은 “점심 매출은 절반, 저녁 매출은 90% 이상 줄었다”면서 “하지만 정부 지원은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준 재난지원금이 유일했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소상공인의 경우 방학, 휴가 등이 겹친 7~8월 매출이 연 평균 매출의 27% 정도로 1년 장사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코로나19 재확산’이 8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은 ‘소비 심리 위축’

(6%), ‘최저임금 인상’ (3.7%)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차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손실보상액 6000억원과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으로는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메우기에는 부족한 만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본부장은 “특히, 개정 손실보상법(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시행령 마련과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10월 이후에나 가능해 당장 매출 절벽을 마주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추경안에 자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충남 지역특화산업 한뫼음 지원

충남 지역특화산업 육성 다자간 MOU 특구·특화단지 참여기업 45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충남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나선다.

중진공은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충남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뫼음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후 상호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중진공과 협약기관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친환경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디스플레이), 규제자유특구(수소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및 연구개발(R&D), 인력지원 등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중진공은 충남지역 특구 및 특화단지 참여기업 전용자금을 마련해 3년간 약 45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마케팅, 인력 양성 및 창업·기술지원 사업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특구·특화단지 기업 발굴 및 홍보를 담당하고 천안시, 아산시는 지자체별 고유 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분야 R&D와 시험인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 특구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는 지역 주력 산업인 친환경 모빌리티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성장패키지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에 힘을 모은다.

또한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는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발전시스템부터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까지 수소 연료의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을 지원해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한뫼음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중진공은 앞으로도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자동차연구원 등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주력 산업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수소에너지 전환 등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삼표, 3m³·9m³ 믹서 장착 레미콘 차량 운영

믹서 크기 다양화로 고객 수요 대응

삼표가 레미콘 차량의 믹서 크기를 다양한 운송 혁신에 나섰다.

건설 현장의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18일 삼표산업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3m³의 믹서를 장착한 레미콘 차량(믹서트럭)을 비롯해 9m³ 믹서트럭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믹서트럭은 믹서의 크기에 따라 1회에 운반할 수 있는 레미콘 양이 달라진다. 기존 레미콘 차량은 사용량과 무관하게 6m³로 획일화돼 있었다. 이때문에 대형 건설 수요부터 소규모 공사에 이르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따랐다.

삼표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3m³ 차량은 6m³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도심 골목길 소규모 공사 현장에 적합하다. 6m³ 차량으로는 진입이 어려워 배관타설(포터블) 등 별도의 장비를



삼표의 레미콘 운반 차량.

이용하거나 손수레로 인력을 동원해 현장까지 레미콘을 운반해야 했다.

시범운영하는 3m³ 차량은 별도 장비를 이용해 레미콘을 타설하던 주택 밀집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아 소외 지역 내 잠재고객 확보가 기대된다.

9m³ 차량은 기존의 6m³ 차량에 비해 레미콘을 회당 1.5배 추가 운반할 수 있다. 최근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레미콘이 대량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

한진, ‘수산물 배송 플랫폼’ 만든다

공유장과 콜드체인기술 실증화 협력

한진이 수산물 직거래스타트업 공유어장과 함께 수산물 배송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한진과 공유어장은 신선 수산물 배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선한 수산물 운송을 통해 콜드체인기술의 실증화를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어민들에게는 공정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해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쓴다.

18일 한진에 따르면 공유어장은 ‘선(先)주문, 후(後)조업’ 방식의 비대면 수산물유통 플랫폼인 ‘파도상자’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원산지과 조업시기가 확인된 갓 잡은 신선한 수산물, 어부에게는 유통마진을 돌려준다는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고객이 미리 주문과 결제를 끝내면 2주 내에 어부가 출항해 조업 당일 수산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은 조업 예정 기간, 조업 여부, 발송 안내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한진과 (주)공유어장이 맺은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조현민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부사장, 공유어장 유병만 대표, 한진 노삼석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최근 조업대기 기간을 1~2 일로 줄인 ‘만선알림’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환경 안심 서비스’ 시행

코웨이가 수질 환경문제 발생 시 먹는 물에 대한 안전과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수질검사 ‘환경 안심 서비스’를 시행한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환경안심서비스는 수질 환경문제 발생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정수기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

질검사를 진행해 안전한 정수기 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코웨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물기업으로서 여러 수질 환경오염원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빠르게 해소하고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기획했다.

환경안심서비스는 수질 문제가 발생된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상황에 따라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부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사적모임 4인 적용”
▲‘주말 검사량 줄었는데도’... 신규확진 1454명, ‘12일째 1000명대’ /사진 뉴시스



▲백신 1차접종 국민 31.4%... 완료율 12.8% /사진 뉴시스
▲서울 관악구 사우나서 101명 확진... 방문자 진단검사

▲2025년까지 정부세종청사 관용차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
▲종교단체 대표들 “김경수, 현명한 지도자” 선처 탄원